

2010

디자인진흥원사

- 한국 디자인 DNA 발굴·정립사업 시행
- 해외디자인나눔사업 시행 (베트남, 말레이시아)
- GD 선정회수 연1회로 축소
- 5대 디자인트렌드 발표
- 대전충청지역 KDM(코리아디자인 멤버십) 사업 추진
- 디자인 권리보호를 위한 디자이너 교육
- 디자인 보호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한국 디자인사

- 조관현, 천지인 자판 특허권 기부
- 서울시, 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
- 디자인모을(조영길) '백만 볼 수출의 탑' 수상
- 『글짜씨』 창간
- 디지로그 사물놀이 4D 공연
- <죽은나무에 꽃피우다> 초연

한국 사회사

- 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 카카오톡 출시
- 천안함 침몰
- 북한 연평도 포격 사건

소프트파워 ‘해외디자인나눔사업’:
한국 디자인 해외 진출

2010년 1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국이 되었다. 이는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는 입장에서, 반대로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원조를 제공하는 공식 후원국이 됨을 의미한다. 한국전쟁 후 오랫동안 선진국 진입을 염원했던 우리나라로서는 국가적 긍지를 가지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KIDP는 아세안 회원국 등 미래 디자인 수출 시장으로 진입할 신흥 경제 성장국을 대상으로 한국 디자인의 수준과 역량을 알리고 인식을 높여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 아래 디자인 나눔 사업을 추진했다. 바로 2000년 개도국 디자인 인재 양성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진행한 ‘디자인 연수 사업’이 그것이다. 과테말라, 온두라스, 콜롬비아 등 남미와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 아시아에서 온 디자이너와 기업 임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국 디자인산업과 정책, 한국 기업의 디자인 성공 사례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였다. 이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떠오르는 시장을 대상으로 국내 디자이너로 구성된 해외 디자인 봉사단을 파견해 한국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잠재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기

초를 마련했다.

이후 디자인 연수 사업은 2010년 ‘해외디자인나눔사업(신흥시장 개척 비즈니스 교류 사업)’으로 이어졌다. 철도, 다리 등 사회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공적 개발 원조(ODA)를 해온 다른 나라들과 달리, 디자인이라는 소프트파워를 전면에 내세워 문화적 감수성을 자극하고 K - 디자인의 영향력을 높인다는 전략을 세웠다. 해외디자인나눔사업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태국, 필리핀 등 아세안 4개국에서 추진됐다.

처음에는 각국의 필요에 따라 세미나와 워크숍 등 지식 교류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점진적으로 한국 디자인 기업과 디자이너의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국내 디자인 전문가를 모집해 현지 수요에 부응하는 디자인 나눔 활동을 펼쳤고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디자인 제품 및 브랜드 사업과 연계하여 현지 제조 기업과의 실질적 협업을 위한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태국과는 서비스디자인 공동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 협정을 맺고 노후화된 방콕 중앙역 및 태국 철도에 서비스디자인 방법론과 한국의 선진 디자인 노하우를 입히는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수요를 반영, 현지 디자이너들과 함께 말레이시아의 풍부한 목재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가구 디자인 개발 워크숍을 추진하였다. 이외에도 2013년 필리핀 마닐라페임 한국관에 국내 디자인 회사 8개사가 참여해 현지 판매와 더불어 샘플 계약을 맺거나, 2014년 베트남 엑스포에 ‘한 - 베 디자인 교류관’을 구성하여 베트남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디자인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2014년까지 지속된 이 사업은 이후 동남아 주요 국가에 KIDP 해외지사 개소 추진으로 이어졌고, 2011년부터 시작된 아시아디자인나눔협의회(유관기관 대표급 연례회의) 등이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2020년에는 KIDP 50주년을 기념하여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약 7개국 9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아시아 디자인나눔협의회가 한국에서 개최되며 나눔 세미나, 머티리얼 전시 및 동남아 디자인산업 현황조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